

한국어학에서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의 흔적과 영향 관계*

서민정(부산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한국어학에서 고바야시 히데오의
흔적과 영향 |
| 2. 고바야시 히데오와 한국어학자 | 4. 맺음말 |
| 2.1. 고바야시 히데오의 약력 | |
| 2.2. 한국어학자와의 교류 | |

1. 머리말

1.1.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언어’는, 정치, 사회 문제와 함께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고, 언어를 둘러싼 문제의식은 국가, 민족, 사회, 정치, 사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HK) ‘고전번역학과 비교문화학을 통한 소통 인문학의 창출’을 위한 연구(과제 번호: KRF-2007-005-AM0059)의 일부이다.

국어학자들은 국가의 독립과 언어의 관련성을 강조했고, 국가의 정책에서 언어의 문제를 고민하는 등 언어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어학’¹⁾이라는 학문이 제도 속에 자리 잡으면서, 한국어학의 연구대상인 ‘한국어’는 사회나 사상 등과는 분리된 ‘한국어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나 사상과 같은 언어외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언어 연구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이며 이것이 한국어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관점이 보편화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학문 경향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인지, 아니면 역사의식이나 학문적 배경의 변화 등과 같은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학에서 추구하는 ‘언어 (내적) 체계의 파악’, ‘과학적 언어 연구’라는 것이, 어떠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방향으로 추구해야 하는 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연구가 거의 없었다.²⁾

이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대상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된 계기를 탐색하고자 한다.

1) 알려진 바와 같이, ‘국어(國語)’와 ‘국어학(國語學)’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들어온 번역어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국어와 국어학은 각각 일본어와 일본어학을 가리킨다. 이 연구의 대상 시기에 일제강점기가 포함되므로 ‘국어’, ‘국어학’이라는 용어는 자칫 혼동될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우리말과 우리말 연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한국어’와 ‘한국어학’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이희승(1996: 57)에 따르면 이희승이 경성제대를 졸업할 무렵에는 김두봉, 권덕규, 최현배 등과 같은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회고 이외에도 많은 자료들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이 이루어 놓은 학문적 성과가 대단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구조주의 언어학과 변형생성문법적 연구 방법론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당시의 학문적 성과와 학문의 성향이 제대로 평가, 계승되지 못했다는 점도 한국어학이 추구하는 방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1.2. 한편, 한국어학에서 추구하는 ‘과학적 언어 연구’, ‘언어(내적) 체계 연구’와 같은 관점은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관련지어 설명되는데, 다음의 최명옥(2016: 5)의 설명이 대표적이다.

- (1) 현대 언어학 그 중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은 20세기 초에 F. de Saussure(1792-1870)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그에 의하면 언어는 실체의 집합이 아니라 음운, 문법, 어휘를 구성하는 각 층위 요소들의 상호관계, 다시 말하면 체계로 이루어진 구조체이므로 언어연구의 목적은 언어의 체계를 밝히는 것이다. 그는 언어에 대한 통시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체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은 공시적 언어이므로 동질적인 공시 언어에 대한 연구를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질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방언’은 연구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한국어학에 소쉬르의 언어학을 가장 먼저 소개한 학자는 경성제대의 법문학부에서 언어학 강사와 조교수를 지낸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이하 고바야시)라고 할 수 있다. 고바야시는 1916년에 출판된 소쉬르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1928년에 『言語學原論』(岡書院)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29년에서 광복 전까지 경성제대에서 언어학을 가르쳤다는 점에서 그의 학문은 경성제대의 법문학부 학생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현대 국어학의 개척자’(이병근, 2012)라고 평가받는 이승녕(1983)의 회고에는 ‘小林英夫’(고바야시)라는 학자가 거론된다.

- (2) 내가 親하게 사귄 수 있었고 내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言語學의 小林英夫 助教授이었다. 내가 大學時代에 學問하는 性格과 態度를 일깨워준 분이 바로 이 小林氏이었다. (p449)
- (3) 내가 새로운 韓國語學의 理論을 가지게 된 것도 小林教授의 言語學의 訓練에서이다.(p452)

그리고 이희승의 『국어학개설』(1955)에 설명된 수평적-수직적 개념 등은 소쉬르의 공시적-통시적 개념과 관련되는데, 그의 글을 보면,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직접 읽었다기보다는 고바야시의 번역서를 통해 소쉬르의 언어학을 접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의 번역서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화언’ 등의 번역어도 고바야시의 번역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고바야시가 한국어학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고바야시의 영향에 비교하면 한국어학에서 고바야시에 대한 언급이 지나칠 정도로 미비하다는 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고바야시가 경성제대에서 1929년에서 1942년까지 언어학 강의를 했다는 사실과 이승녕의 회고(1983) 등을 바탕으로 보면 한국어학에 그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힘들 듯하다. 특히 한국어학이 구조주의 영향을 통해 발전했다는 평가가 유효하다면 소쉬르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번역하고 그 내용을 경성제대에서 오랜 기간 강의했던 고바야시의 영향 관계에 대한 고찰은 분명 필요하다.³⁾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고바야시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한국어학에서 그의 흔적들과 영향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한 고찰을 통해 현재 한국어학이 언어 내적 체계 연구와 과학적 언어 연구를 추구하게 된 계기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김하수(2005: 484~490)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한국의 언어학이 19세기 끝무렵에 싹튼 일련의 계몽주의자에서 비롯되어 주시경에 이르러 전문성과 이론적 체계를 갖춘, 개별 학문 분야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하였다. 주시경의 시대적인 문제의식은 김두봉으로 이어지고 한국 언어학의 가장 길고 넓은 흐름을 이어 나간다고 한다. 1930년 전후 유럽의 특정 언어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학문적 풍토가 지닌 문제의 역사적 조건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히테의 언어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최경봉(2016)의 논의는 지금까지 근대국어학사의 서술방식을 탈피하여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근대국어학을 조망하고 있어 근대국어학을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근대국어학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경봉(2016: 304~305)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의 수용에서 고바야시 히데오와의 관계를 지적한 바 있다.

2.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와 한국어학자

2.1.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의 약력

2.1.1.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1903~1978)는 1927년 東京帝國大學 언어학과를 졸업하였고, 1928년 소쉬르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言語學原論』(岡書院)으로 번역하였다.⁴⁾ 1929년에 경성제국대학⁵⁾ 법문학부 강사로, 이후 1932년부터 광복 전까지 조교수로 법문학부 제2강좌(國語學)를 맡았다.⁶⁾ 1946년에 교토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1948년에 도쿄공업대학의 프랑스언어학과 교수를 역임하면서 1950년 나고야대학의 교수를 겸임하다가 1963년에 도쿄공업대학에서 정년을 했다.

4) 이 번역서는 1940년에 출판사를 옮겨 岩波書店에서 다시 출판하였고, 1972년에 고바야시가 개역(改譯)하면서 번역서의 제목을 원서 제목에 따라 『一般言語學講義』로 바뀌어 출판하였다.

5)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에 대한 설명은 이준식(2002) 참조.

6) 조선총독부 직원록 자료에 따르면 1929년 법문학부 강사로 시작해서 1932년에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광복 직전까지 경성제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진다.

(1) 1929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講師(월수당200)

1930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講師(월수당200)

1931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講師(월수당189)

1932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教授 7등11급

1933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教授 7등11급

1934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教授 6등10급

1935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教授 6등9급

1936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教授 6등9급

1937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教授 5등9급

1939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教授 5등8급

1941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教授 4등7급

1942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教授 4등

1943 小林英夫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教授 4등

2.1.2. 그러면 여기서 고바야시의 경성제국대학에서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어문학과와 국어학과의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1926년에 개설한 경성제국대학⁷⁾은 법문학부와 의학부로 구성되었는데, 법문학부는 다시 문학과, 철학과, 사학과로 구분된다. 그 중 문학과는 다음과 같은 전공으로 구분된다.

- (4) 국어학·국문학(2강좌), 조선어학·조선문학(2강좌), 지나어학·지나 문학(1강좌), 영어학·영문학(1강좌), 외국어학·외국문학(1강좌)

또한 김윤식(2009: 274~275)와 야스다 도키아키(2009)의 글을 바탕으로 경성제국대학의 국어학·국문학과와 조선어학·조선문학과와의 교수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담당교수	담당강사
조선문학(제1강좌)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어윤적, 정만조, 김태준, 권순구
조선어학(제2강좌)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6)

	담당교수	담당강사
國文學 (제1강좌)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 아소 이소지(麻生磯次)	
國語學 (제2강좌)	도키에다 모도키(時枝誠記)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이후 조교수)

7) 김윤식(2009: 269~270)에 따르면, 조선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예과를 먼저 설립했는데, 예과는 1924년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조선어학과 조선문학은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⁸⁾와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⁹⁾가 각각 담당하다가, 1933년 오구라가 동경제대 문학부 언어학과 주임교수로 옮기면서 경성제대의 조선어학은 오구라가 겸임교수로 1년에 한 번 집중 강의를 했고, 다카하시는 1938년에 퇴임하고 이후 강사였다. 그리고 경성제대의 국어국문학과에서 國語學(현재 일본어학)을 담당한 교수는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記)¹⁰⁾였는데, 김윤식(2009: 281~282)에 따르면 고바야시는 국어국문학과 제2강좌로 도키에다를 보좌하였다고 한다.¹¹⁾

한편 『삼천리』 제13권 제3호(1941년 3월 1일)의 “京城帝大의 全貌”라는 기사에 따르면 경성제대¹²⁾의 법문학부에는 언어와 문학에 관련된 교수는 아래와 같은데, (7)에서 보면 고바야시는 ‘言語學’ 담당으로 제시되어 있다.

(7) 法文學部

(教授) 朝鮮語學 (東大) 小倉進平

國文學 麻生磯次

國語學 時枝誠記

(助教授) 言語學 小林英夫

國文語 荻原淺男

(7)을 보면 1940년대로 가면서 경성제대에서 조선어학과 조선문학은 담당 교수가 없다. 조선어학 담당 교수인 ‘小倉進平’은 동경제대 소속이므로 엄밀히

8) 오구라 신페이는 1943년에 퇴임하였다.

9) 다카하시 도오루에 대한 것은 박광현(2007: 27~57) 참조

10) 도키에다의 스승인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는 일선동조론을 주장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가나자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영진, 김병문, 조태린(2012)를, 도키에다 모토키에 대한 것은 가라타니 고진(2006)을 참조.

11) (2)를 바탕으로 보면, 경성제대 조선어학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수는 오구라, 고바야시, 도키에다였다고 할 수 있다.

12) 1941년 경성제국대학일람 15권(p7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문학부의 문학과외의 수업 과목은 “문학개론, 언어학, 국어학, 국문학, 조선어학, 조선문학, 지나어학, 지나문학, 영어학, 영문학, 조선어, 지나어, 로어, 희랍어” 등이다.

말하면 경성제대에서는 조선어학을 전담하는 교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33년 오구라가 동경제대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는 國語學이나 言語學 담당교수가 조선어학 수업을 담당했을 것이다.

2.1.3. 한편 오구라¹³⁾에 비해 고바야시는 조선어로 쓴 글을 찾기 어렵다. 조선에서 출판, 수록된 글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검색한 자료에는 '제국대학신문'의 서평 세 편 뿐이었다. 그 중 두 편은 고바야시의 서평이고 한 편은 고바야시의 저서를 서평한 것이다.

- (8) 帝國大學新聞(1934년 06월25일) 신간소개-서평(小林英夫)
メイエ著·泉井久之助氏譯 『史的言語學に於ける 比較の方法』
(1934)
- (9) 帝國大學新聞(1935년 05월27일) 신간소개-서평(西脇順三郎)
小林英夫氏の 啓蒙的な研究 : 「言語學方法論考」感想
- (10) 東京朝日新聞(1938년 05월09일) 신간소개-서평(小林英夫)
野上豊一郎氏著 『翻譯論』

그런데 실제 고바야시는 서구이론을 번역한 번역서와 자신의 이론을 펼친 많은 저서를 가지고 있다. 아래는 그 중 대표적인 저역서만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어로 된 저작은 찾기 어렵다.

- (11) 言語活動と生活, 岩波書店, 1974.
言語學の基礎概念, 大村書店, 1959.
一般文法の原理, 三省堂, 1958.
言語學通論: 言語活動の構造と變遷の理論の書/小林英夫 著, 三

13) 오구라의 조선어 정비 사업에 대한 것은 야스다 도키아키(이진호 외 옮김(2009)의 9장) 참조.

- 省堂, 1957.
 未來の國語設計者：國語問題管見 / 小林 英夫 著, 振鈴社, 1948.
 言語學原論, 岩波書店, 1944.
 文體論の建設 / 小林英夫 著, 育英書院, 1943.
 言語學原論, / F. de Saussure 著 ; 小林英夫 譯, 岩波書店, 1940.
 言語學通論, 小林英夫 著, 1937.
 言語學方法論考, 三省堂, 1935.
 批判的 解説, 一般文法の原理, 岩波書店, 1932.
 生活表現の言語學 / シメヤルル, バイイ 著 ; 小林英夫 譯, 岡書院, 1929.
 言語學原論 / F. de Saussure 著 ; 小林英夫 譯, 岡書院, 1928.

한편 아래의 이승녕(1983)의 회고를 참고로 보면 고바야시는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그러한 어학적 자질이 소쉬르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최초로 번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 (12) 그는 내가 아는 限 正式 코오스를 밝아온 것도 아니어서 처음엔 東京外大의 西班牙語科에 入學, 뒷날 貿易事業에 投身하도록 그의 홀어머니가 마련한 것이란다. 그의 慈堂은 佛語에 能通한 분이어서 小林氏는 西班牙語學科 2年 때는 佛獨語도 많이 工夫한 모양이다. 2學年 때 東大의 言語學科 選科로 入學 卒業論文은 「입센의 文體論」을 佛語로 썼고 資料는 놀웨이語이었다. 그 때까지 日本에서 Fr de Saussure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一般言語學講義)를 번역하다 失敗했다. 그 속에서 特異한 術語를 理解하기 어려워서이다. 그는 東大를 마치고 6個月만에 이 難解의 冊을 훌륭히 번역해서 出版하므로 一躍 言語學의 鬼才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선 京城帝大로 돌린 것이다.

한국어학에서는 지금도 고바야시의 번역어를 통해 소쉬르 언어학을 이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고바야시는 소쉬르의 'langue'를 '言語'로, 'parole'을 '言'으로, 'language'를 '言語活動'으로 번역했고, 'signe'은 '記號'로, 'signifié'는 '所

記, 'significant'은 '能記'로 번역하였다. 최근에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langue'를 '랑그'로, 'language'를 '랑가주'으로 'signifié'는 '시니피에'로, 'significant'은 '시피피앙'로 번역하지만, 한 때 한국어 번역에서 'langue'를 '언어'로, 'language'를 '언어활동'으로, 'significant', 'signifié'는 각각 '능기'와 '소기'로 번역한 것은 고바야시의 번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다.¹⁴⁾ 그러나 아직도 정태언어학, 진화언어학, 공시언어학, 통시언어학, 공시대, 통시대, 자의성 등 많은 번역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2.2. 한국어학자와의 교류

경성제대 조선어문학부 출신¹⁵⁾인 이희승(1930년 졸업), 이송녕(1933년 졸업)¹⁶⁾ 등은 당시 조선어학 교수인 오구라 신페이(小齋陳平)와 언어학 강사/조교수인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의 지도를 받으며 조선어학과 서구 언어학을 접했다. 이송녕(1983)의 회고에 따르면, 특히 고바야시 히데오는 프랑스 언어학을 따라 학문으로서 언어 연구를 해야 할 것을 강조했고, 이에 이송녕도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언어학을 수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송녕은 오구라 선생은 성실한 면에서는 배울 것이 있으나 다른 것은 배울 것이 없었던 반면, 고바야시 선생은 날카로움과 재기가 넘쳐 고바야시 선생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

14) 최근의 번역서(최승언 옮김, 1990/1997 등)에서는 '능기', '소기'보다는 '기의', '기포'라는 번역어를 주로 쓰고 있다.

15) 이송녕(1983: 447), 이희승(1996: 46~54) 등에 따르면, 1회 졸업생 趙潤濟, 2회 李熙昇, 3회 金在喆, 李在郁, 4회 없음, 5회 李崇寧, 6회 方鍾鉉 등이 있었다. 참고로 이희승의 졸업논문은 '·ㅍ'을考究, 이송녕의 졸업논문은 朝鮮語のヒアツス現象について이었다고 한다.

16) 심악 이송녕(1908~1994)은 서울 출생으로 경성제2고보를 거쳐 1933년 京城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평양사범학교 敎諭, 광복 후 경성대학 예과 교수,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13) 내가 親하게 사귄 수 있었고 내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言語學의 小林英夫 助教授이었다. 내가 大學時代に 學問하는 性格과 態度를 일깨워준 분이 바로 이 小林氏이었다.(이승녕, 1983: 449)

(14) 내가 새로운 韓國語學의 理論을 가지게 된 것도 小林教授의 言語學의 訓練에서이다. 나는 국어학을 이렇게 생각했다.

(가) 國語學은 個別言語學이다. 그 國語學이 個別言語學으로 存在하는 同時에 一般言語學일 수 있다.

(나) 오늘날 國語學者는 正式 訓練을 받지 못해서 言語學과 文獻學의 區別도 없고 混亂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이 後者가 나로 하여금 後日 左衝右突의 無法者然하게 싸우게 만든 것도 事實이다.

나는 小倉氏가 主任교수이었지만 그 誠實性은 배웠지만 小林교수 같은 날카로움과 才氣가 넘쳐 흐르는 젊은 교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이승녕, 1983: 452~453)

그러나 1983년 회고록 이외에 국어학 전공의 저서나 논문에서 ‘고바야시 히데오’의 연구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희승의 연구에서도 1955년에 출판된 『국어학개설』에서 고바야시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는 정도이다.

(15) 저 佛端(Franc-Swiss)學派의 泰斗 쏘슈르(Ferdinand de Saussure)는 “言語(langue)는 말(parole)의 運用에 의하여, 同一 社會에 屬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貯藏되어 있는 財寶라” 하였으며(小林 英夫 譯 「ソシコール 言語學原論」〔改譯新版本〕 24頁), 일본인 時枝 誠記¹⁷⁾氏는 이 定議를 要約하여 “言語(langue)는 概念과 聽覺映像의 結合體라”고 解釋하였다.(國語學原論 44頁)(p9)

17) 도키에다 모토키(1900~1967)는 김윤식(2009: 278)의 설명에 따르면 1927년 경성제대에 조교수로 와서 1943년 동경제대로 전임될 때까지 제2강좌인 국어학을 가르쳤고, 고바야시 히데오는 1929년 강사로 와서 1932년 조교수로 승진하여 제2강좌에 임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구조주의 도입이 ‘고바야시’를 경유했다는 측면과 한국어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분명하다.¹⁸⁾

3. 한국어학에서 고바야시의 흔적과 영향

3.1. 광복 이후 한국어학이 지향하는 방향은 이승녕(1983: 464~465)에서 제시된 ‘새로운 國語學’과 크게 다르지 않다.

- (16) 나는 日本 때의 日本式 大學의 國語學(日本語學)科를 보면 完全히 文獻學에 基운 느낌이어서 우리는 이것을 脫皮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國語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믿고 實踐한 것이다.
- (1) 國語學은 個別言語學이다. 國語學은 方法에 따라 一般言語學으로 發展할 수 있다.
 - (2) 國語學은 言語學과 結付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外國語를 알고 言語學으로서 國語學이 나아가야 한다.
 - (3) 國語學은 言語學的 方向과 文獻學的 方向으로 갈리고 註釋 國語學史 文獻研究는 곧 文獻學에 든다.
 - (4) 國語學에서 가장 弱한 部分이 系統論이고 比較言語學이다. 따라서 國語學者는 蒙古, 通古斯, 土耳其諸語의 工夫도 必要하다. 이런 方向으로 國語學科를 운영한 내 態度는 옳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내 講義에는 言語學用語가 英, 獨, 佛, 라틴希臘諸語를 必要하면 마구 使用해서 訓練했는데(중략) 國語學이 世界의 學問으로 世界로 進出하게 되었다. 적어도 나로선 새 國語學的 體系를 樹立하고 이에 따라 日帝時代의 閉鎖的 그리고 지나치게 文獻學에 基운 學問하는 態度에서 벗어난 셈이다.

18) 이병근(2004, 2012)에서도 이희승이나 이승녕은 당시 고바야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16)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지적하는 ‘일본식 대학의 국어학과’가 당시 대부분의 일본 대학의 국어학과 일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경성제대의 국어학과를 한정해서 언급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비판의 대상에는 ‘고바야시’의 학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바야시는 언어학과 문헌학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16)에서 이승녕이 탈피하고자 한 일본학과의 기운은 최소한 고바야시의 학문은 아니다. 실제 (16)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학과 언어학’과의 관계, ‘한국어학과 문헌학’의 관계, 한국어 연구에서 외국어의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고바야시가 주장해 오던 바이다.¹⁹⁾ 고바야시가 경성제대에서 강의하던 기간에 지은 『言語學通論』(1937)을 보면 그러한 해석이 더 가능해진다. 특히 (16)의 (1), (2), (3)은 고바야시가 강조한 내용이었음을 이승녕(1983)의 회고록에도 제시되어 있고, 실제 고바야시(1932, 1935, 1937)²⁰⁾의 서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래는 고바야시의 『言語學通論』(1937)의 차례이다.

(17) 고바야시 히데오, 『言語學通論』(1937), 三省堂.

序篇

- | | | |
|------------|------------|----------|
| 1. 通論の性質 | 2. 事實と方法 | 3. 科學體系 |
| I. 事實 | | |
| 1. 言語活動の定義 | 2. 言語活動の分析 | 3. 記號 |
| 4. 現場 | 5. 象徴 | 6. 歴史的事實 |
| II. 方法 | | |
| 1. 言語活動の科學 | | |
| 2. 言語學と文獻學 | | |

19) 물론 고바야시의 논의들도 그의 저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쉬르, 파울, 트루베츠크이 등 서구 언어 이론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래서 고바야시의 고유의 이론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20) 고바야시 히데오(1932), 『(批判的解説)一般文法の原理』, 岩波書店.

고바야시 히데오(1935), 『言語學力法論考』, 三省堂.

고바야시 히데오(1937), 『言語學通論』, 三省堂.

- 3. 言語の學と言の學
 - 4. 內的言語學と外的言語學
 - 5. 共時言語學と通時言語學
 - 6. 汎時論
 - 7. 記述と説明
 - III. 構造
 - 1. 概說 2. 單位 3. 價値 4. 統合 5. 體系
 - IV. 變貌
 - 1. 概說 2. 變化の對象 3. 變化の形式 4. 言語史
 - V. 言語學の周邊, 日本言語學へのイデー
 - 1. 言語學の(習得, 政策, 技術)
 - 2. 日本言語學へのイデー
- 餘篇 言語學なこれから學ぼうと思ふ人に

고바야시(1937)은 각 장별로 참고문헌이나 인용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데, 고바야시(1932, 1935) 뿐만 아니라 서구의 많은 언어이론이나 철학서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위의 책의 II-2에서 언어학과 문헌학의 연구대상의 차이나 범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언어학과 문헌학이 구분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내용은 (16)의 이승녕(1983)에서 언급한 국어학과 문헌학의 구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소쉬르가 한국어학자의 글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아래의 이승녕의 글이다.

- (18) 李崇寧(1932), 글과 말, 朝鮮語文 5호, 1-4(4쪽), 朝鮮語文學會
 그렇면 우리는 (實際的方面이 아니거든) 學術的方面에서 모름즉
 이 말을主로하여 研究할 것이다. 그리하여 글의幻惑에 빠지면 안된
 다. 쏘슈르氏의 『이야이한말 그것만으로 言語學의對象이되는것이
 라』는名言을잊지말자.

이승녕이 1928년에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하였고,²¹⁾ 고바야시는 1929년에 경성제대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승녕이 직접 소쉬르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6)를 구해서 읽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1932년에 위의 글을 쓰기 전 ‘소쉬르’와의 만남은 고바야시를 통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승녕이 고바야시를 통해 소개받은 소쉬르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6)를 직접 읽었는지, 아니면 번역본인 고바야시의『言語學原論』(1928, 岡書院)을 통해서 소쉬르 언어학을 이해했는지, 고바야시의 수업을 통해 접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바야시를 경유한 소쉬르 언어학의 만남인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²²⁾

21) 중외일보(1928년 03월30일) “경성대학 예과, 입격자 성적발표, 합격자 149명중 조선학생 6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최석,임상광,김계간,홍봉진,박승하,김병주,이중?,김육?,이홍배,이명신,이최관,조중함,신기석,신필연,조평재,서상준,김성환,한동석,김귀갑,이승녕,신준담,김태호,김희건,최중?,김중선,이?숙,박연태,고형?,박?우,부운?,이신섭,방중현,채봉필,이노근,최태양,유관표,안용태,이만현,문인주,윤종후,최영현,김중강,이태학,강태기,최정희,성주영,조영호,오근태,?모양,조규찬,정예(“?부분은 자료의 상태상 글자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22) 한편 (15)에서 ‘이야기한말’은 소쉬르의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다.

(1) ㄱ. 말과 문자는 기호의 두 상이한 체계들인데, 문자는 말을 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한다.

ㄴ. 쓰여진 단어와 말해진 단어 사이의 연결이 언어학의 대상이 아니라, 말해진 단어만이 언어학의 대상이다.

그런데 (1)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어져온 서양언어학의 전통인 음성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스스로 현전하는 음성이 가장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면, 문자는 그러한 음성을 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설명이다. 자크 데리다는 『그라마톨로지』에서 문자언어보다는 음성언어를 중시하는 소쉬르의 언어이론을 ‘음성중심주의’ 내지 ‘로고스 중심주의’로 정의하면서 소쉬르의 언어학에서 말에 특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15)의 소쉬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소쉬르의 ‘이야기하는말’에 대한 강조는 조금 더 엄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었다. 실제 한국어학에서 소쉬르를 도입하는 방식이 (15)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어학에서 소쉬르 도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것이나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연구로 미룬다.

이와 같이 고바야시의 이론은 오구라 신페이와 람스테드와 같이 그가 직접적으로 한국어를 연구한 것은 아니나, 번역서(1928, 1929, 1934)²³⁾와 저서(1932, 1935, 1937) 등을 통해 이승녕의 학문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3.2. 한편, 이희승은 소쉬르나 고바야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나, 소쉬르의 공시언어학과 통시언어학의 개념과 유사한 수직적 연구와 수평적 연구라는 개념으로 언어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²⁴⁾

(19) 하나는 垂直的이니, 卽 時間的으로 言語가 發達變遷한 過程을 考察하는 歷史的 研究를 이룸이요, 둘째는 水平的이니, 卽 空間的으로 現存하는 言語의 形態, 性質 乃至 方言을 考究하는 것과 또는 二種 以上の 言語를 比較 研究하는 等이다. 이 두가지 方向의 研究는 서로 無關係한 것도 아니요, 또 全然 分離하여 研究할 수도 없는 것이다.²⁵⁾

그리고 이 내용은 이후 이희승의 대표저서인 『국어학개설』(1955)에서는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로 용어를 바꾸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임흥빈(2011: 95)에서는 이희승(1936, 1939)에서 언어학의 하위 부분을 망라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3) 고바야시 히데오 옮김(1928), 『言語學原論』 리스슈어르 著, 岡書院.
 고바야시 히데오 옮김(1929), 『生活表現의 言語學』, シャルル, バイイ 著, 岡書院.
 고바야시 히데오 옮김(1934), 『誤用の文法: 機能言語學的研究』 アンリ, フレエ 著, 春陽堂.

24) 이러한 이희승의 학문적 태도는 야스다 도시아키(이진호 외 옮김, 2009: 189)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25) 이희승(1932), 지명 연구의 필요, 『한글』 2호, 238~240, 한글학회.

(20) (9가, 나)에서는 우선 일석이 생각한 언어학의 하위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9가)에서 우리에게 다소 낯선 것은 ‘언어심리학, 언어자연사, 의의학, 해석학’과 같은 것이다. ‘언어심리학’은 언어미학을 뜻하고, ‘언어자연사’는 언어사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의학’은 의미론이나 의미학일 것인데, ‘의의학’이란 것이 소쉬르를 상기시킨다. ‘해석학’은 고어 주석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9가)에 통사론이나 형태론과 같은 것이 나열되지 않은 것이 이상한 느낌을 준다. (9나)에는 (9가)보다 현대적이라 할 수 있는 언어학의 분야가 대부분 망라되어 있다.²⁶⁾

그런데 임흥빈(2011)에서 평가한 이희승의 언어학의 하위 부문은 고바야시의 번역서(1929)와 고바야시 저서(1935)에서 언급된 언어학의 여러 하위 부문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희승의 논의에도 고바야시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3.2.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한국어학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추구하였다. 아래는 당시의 한국어학자들이 언급한 ‘과학’의 예이다.

(21) 朝鮮語의 方言狀態는 上述한 바와 같이 紊亂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方言이 많음을 근심할 바가 아니요 다만 標準語와 標準綴字가 서지 아니 한 것을 걱정할 뿐이다. 朝鮮語는 적어도 獨特한 制文字로 적어온 제가 이미 半千年이 되었으니 文獻도 적지 아니 하려니와 또 2,000餘萬人의 혀끝에 살아서 날로 움직이니 그 言語의 研究材料는 山같이 쌓여있다. 그러나 科學者의 開拓의 힘이 아직 넉넉이 미치지 못한 것을 恨嘆하는 바이다. 標準語를 세우는 科學的方法은 여러 方言 中에 가장 勞力있는 方言 하나를 가리어서 標準을 삼고 不足한 點과 잘못된 點은 文獻과 다른 方言으로써 補充하며

26) (20)에서 언급된 (9가)는 “이희승(1936), 고대언어 연구에서 얻을 몇 가지, 『일석이희승전집』 2: 32”를 가리키고, (9나)는 “이희승(1939), 조선어학계, 『일석이희승전집』 2: 36”를 가리킨다.

質正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標準朝鮮語를 세우는 대는 서울方言을 標準삼고 다른 地方의 方言과 또 옛 文獻으로써 그 못자리를 채우고 잘못 됨을 바로잡아서 國語의 科學的 基礎를 세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²⁷⁾

(22) 言語研究는 科學的이어야 한다. 일부러 自我意識을 鼓吹하기 爲하여 外來語를 驅逐한다는 것은 哲學者, 文豪, 思想家, 政治家들의 할 運動이요, 決코 言語를 研究 整理한다는 科學者의 할 領分의 일이 아니다. 科學者는 어디까지든지 冷靜 公平하여야 한다. 既有한 言語를 料理하는데 忠實할 것이요, 新語를 創製하여서는 안된다.²⁸⁾

(23) 正音의 音韻은 세계 문자 중 가장 진보한 과학적 조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音韻도 풍부하여서 모음은 세계 표음문자 중 제 1위를 차지하였다. 할 만합니다.²⁹⁾

(24) 國語라 하면 解放後 所重히 여기는 나머지 非科學的인 쇼비니즘 (Chauvinisme, 狂信的 愛國主義)의 態度가 엿보여 正當한 理論을 펼 수 없는 面도 있는 터이다. 더구나 民族하면 때로는 興奮을 느끼고 神經過敏히 서둘러는 學問하는 態度를 보며 本項의 論旨에도 念慮도 있지만 우리는 科學的 精神(L'esprit scientifique)을 끝까지 堅持하여야 하며 學問에 있어서는 極度로 冷靜하여야 함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³⁰⁾

20세기 전반기에는 많은 영역에서 ‘과학’ 혹은 ‘과학적 연구’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서구, 근대, 논리, 실증’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국어학에

27) 이극로(1931.12.27.) 조선말의 사투리. 『동광』 29.

조선어학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극로는 한글운동을 조선의 말과 문자를 과학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8) 처음 발표는 1933.4. ‘新語 濫造 問題’(『朝鮮語文學回報』6호, 朝鮮語文學會), 인용은 『一石 李熙昇 全集1』, p.399, 一石 李熙昇 全集 刊行委員會 編(2000), 서울대학교 출판부.

29) 金允經(1931.10.4.), 訓民正音의 創定, 조선문자의 역사적 고찰(8), 『동광』 26.

30) 이승녕(1954), 「민족 및 문화와 언어 사회」, 『국어학개설』, 진문사.

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위의 이극로, 이희승, 김윤경, 이승녕 등의 국어학자들의 글에서도 ‘과학’, ‘과학적 연구’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24)의 이승녕의 글은 ‘국어’를 민족과 결부시키는 쇼비니즘을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러면서 ‘民族하면 때로는 興奮을 느끼고 神經過敏히 서둘르는 學問하는 態度’가 아닌 태도가 ‘과학적 정신’을 견지하고 학문하는 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24)의 글은 이른바 언어민족주의적 연구를 했던 최현배, 김윤경 등과 같은 조선어학회의 연구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최현배, 김윤경 등도 ‘과학’적 연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승녕의 ‘과학’과는 구분되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승녕(1954: 13~14)³¹⁾에 따르면, 문자나 책 연구, 과거의 학자 연구, 세종대왕 연구, 고어의 뜻풀이, 金石文의 解讀 등등을 문헌학적 연구라 하고 이러한 문헌학적 연구는 국어학의 주체일 수 없고 보조과학적 위치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문헌학적 연구를 대부분의 학자나 일반인들이 국어학의 주체라 생각하는데 이런 착각은 과거 구주학계에서도 있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고바야시(1937: 219~223)에서 2장의 언어학과 문헌학의 설명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민족과 언어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님을 설명하고 언어 정책, 언어교육, 언어철학적인 것은 순수한 학문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즉 이승녕이 추구하는 과학적 연구는 김영환(201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쉬르의 내적언어학과 관련되며 소쉬르의 언어학은 이른바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중심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연구와 구별하는데 활용되었다.

31) 이승녕은 1954년 『國語學概說』(p26)에서 ‘페르낭 드 샤흐우르’와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거론하면서 언어 기능의 직능을 설명하고 방언과 랑그, 파를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바야시 히데오’에 대한 언급은 없다.

3.3.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어학에서 초기 소쉬르 언어학의 도입은 ‘고바야시 히데오’를 통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어학의 체계 속에는 앞의 (13)에서 언급된 이송녕의 ‘새로운 國語學’이나, 이희승(1955)의 논의 속에서 고바야시의 이론은 익명으로 수용되면서, 소쉬르 언어학은 이희승(1955)나 이송녕(1954) 등에서 ‘과학적 연구’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이 연구는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고바야시 히데오가 한국어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그를 통해 도입된 소쉬르 언어학이 도입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4.1.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1903~1978)는 1928년 소쉬르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言語學原論』(岡書院)으로 번역하고, 1929년에서 광복 전까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 國語學과 言語學 전공 강의를 맡으면서 이희승, 이송녕과 같은 한국어학자들에게 소쉬르를 비롯한 서구 언어이론을 소개하였다.

4.2. 고바야시의 이론은 이송녕의 학문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희승의 저술에서도 고바야시 이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고바야시의 한국어학에 끼친 영향은 소쉬르 언어학 번역이 좀더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있는 것인데, ‘공시대’와 ‘통시대’, ‘자의성’ 등과 같은 그의 번역어가 아직까지 한국어학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4.4. ‘과학’적 연구에 경도되어 있던 20세기 중반기, 이승녕, 이희승 등은 최현배, 김윤경 등과 같은 언어민족적 연구에서 주장하는 ‘과학’적 연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과학’적 연구를 추구하면서 소쉬르의 구조언어학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5. 이러한 고찰은 현재 한국어학에서 추구하는 ‘언어 (내적) 체계의 파악’, ‘과학적 언어 연구’라는 키워드가 어떠한 정통성을 가진 것이며, 이런 개념이 왜 한국어학의 중심에 있게 되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바야시 히데오의 많은 저역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일본 내에서의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검토는 남은 문제로 둔다.

고바야시 히데오의 한국어학에 수용 양상과 소쉬르 언어학의 수용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현재 한국어학이 가진 문제점들이 분명해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 주제어 :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일반 언어학강의』(1916), 『언어학원론』(1928), 이승녕, 이희승, 고바야시 히데오, 구조주의 언어학, 과학적 연구.

〈참고문헌〉

1. 자료

- 고바야시 히데오, 『(批判的解説)一般文法の原理』, 岩波書店, 1932.
 고바야시 히데오, 『言語學方法論考』, 三省堂, 1935.
 고바야시 히데오, 『言語學通論』, 三省堂, 1937.
 고바야시 히데오 옮김, 『言語學原論』 리스슈ール 著, 岡書院, 1928.
 고바야시 히데오 옮김, 『生活表現の言語學』, シヤルルバイイ 著, 岡書院, 1929.
 고바야시 히데오 옮김, 『誤用の文法：機能言語學的研究』 アンリ.フレエ 著, 春陽堂, 1934.

2. 논저

- 가라타니 고진 지음, 송태욱 옮김, 『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6.
 고영진.김병문.조태린,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 문제』, 소명출판사, 2012.
 김영환, 「'과학적' 국어학의 유산」, 『선도문화』 19,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역락, 2009.
 김하수, 「제국주의와 한국어 문제」,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479~511.
 박광현, 「다카하시 도오루와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 '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자기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0, 2007, 27-57.
 야스다 도시아키, 이진호 외 옮김, 『언어의 구축』, 제이앤씨 출판사, 2009.
 이병근, 「心岳 李崇寧 선생의 삶과 學問-10週忌에 다시 떠올리는-」, 『어문연구』 32(1), 2004, 477-4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병근, 「이승녕, 현대 국어학의 개척자」, 『韓國史市民講座』 50, 일조각, 2012.
 이승녕, 「나의 연구생활」, 『나의 걸어온 길』, 대한민국학술원, 1983.
 이준식, 「일제 강점기의 대학 제도와 학문 체계 - 경성제대의 '조선어문학과'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1, 한국사회사학회, 2002, 191-218.

- 이희승, 「딸각발이 선비의 일생」 : 일석 이희승 회고록, 『일석 이희승 전집』, 일석 이희승전집 간행위원회, 1996.
- 임흥빈, 「일석 이희승 선생의 국어학 연구」, 『애산학보』 37, 애산학회, 2011.
- 최경봉,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2016.
- 최명옥, 「'한국어학'과 '한국어 방언학'의 문제점과 그 대안」, 『국어학』 77, 국어학회, 2016.
- 페르디낭 드 소쉬르, 최승언 옮김, 『일반언어학강의』, 민음사, 1990/1997.

[Abstract]

Traces of the Gobayashi Hideo in Korean Linguistics

Seo, Min-jeong

This paper studied how Gobayashi Hideo have influenced Korean linguistics, and how Saussure linguistics introduced through him was used at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Gobayashi Hideo(小林英夫, 1903~1978) translated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Ferdinand de Saussure, 1916) into『言語學原論』(岡書院, 1928). And he introduced Western linguistics theory to Lee Soong-nyung, Lee Hui-Sung, Korean linguists.

Gobayashi's theory has had a direct impact on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study of Lee Soong-nyung. And in the writings of Lee Hee-seung, I could confirm the traces of Kobayashi's theory.

The influence of Kobayashi on Korean language is that the translation of Saussure linguistics is widesprea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his translations such as " You can check.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which was hard to study in 'science', Lee, Soong-nyung., and Lee, Hee-seung pursued 'scientific' research as a concept distinguished from 'scientific' research claimed in language ethnic studies such as Choi Hyun-bae and Kim Yoon-keong. We can confirm that we have utilized linguistics actively.

These considerations are based on what kind of legitimacy is the keyword of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internal) system' and 'study of scientific language' pursued i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basic work to examine why

such a concept is at the center of Korean language . Therefore, a thorough review of many of the Hideyoshi Kobayashi 's bosses and their evaluation in Japan is left to the remaining questions.

I hope that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will be clarified when the acceptance aspect of Hideo Kobayashi's Korean language and the acceptance aspect of Saussure linguistics are clearly revealed.

【Key words】 :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6), 『言語學原論』(1928), Lee Soong-nyung, Lee Hui-Sung, Gobayashi Hideo, structural Linguistics, scientific research.

서민정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 학로63번길 2(장전동) 공동연구소동 719-3

전자우편: smj@pusan.ac.kr

이 논문은 2016년 11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2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12일에 게재 확정되었음.